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0권 28호(다해) 2010-6-6

[묵상]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500-526년 경,
모자이크,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라벤나, 이탈리아)

예수님 따라 외딴 곳까지 따라온 군중,
말씀에 심취해 해 저무는지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
빵도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군중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신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나는 그것을 축복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넘치게 하겠다.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열두 광주리
저희의 미약한 시작을
흘러넘치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저희의 내어놓음 없인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마련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듯
저희의 봉헌을
당신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성찬례를 통하여 저희도 거룩하게 하신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 김봉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이상수 다니엘, 조지 가보라,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 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장동석 휴버트, 김경숙 마리아,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최복덕 마리아, 김명순
	(생) 첫영성체학생들, 신영세 어린이들, 유영균 우르바노, 고규재 체칠리아, 최석원 클레멘스, 차인수 안드레아,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김성택 프란치스코, 김영길 안드레아 & 복희 로사리아 가정, 송동범 베드로, 송기순 엘리사벳, 송민나 마리아, 안연숙 루피나 가정, 요셉/안나회 온천여행에 도움주신 분들 & 봉사자들, 문 바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하권(1 Samuel) 12,7-10.13

화답송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전례성가 75, 성체 성령 대축일 대축일 다해〉
○하느님이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
○하느님이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홀을 뻗치시며
“네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라” 하시리라. ㉠
○거룩한 빛 속에 네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새벽이 돌기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냉았노라 하시리라. ㉠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뒤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1,23-26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Luke) 9,11-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6	312
봉헌	255	255
성체	283	106,308
파견	262	240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자기 표현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타인들과의 관계 안
으로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욕
망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환
희에 찬 깨달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결코 시간 속의 실존이라는 가치로 평가 절하될 수 없다. 그
생명은 우리의 실존을 붙들고 그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게 한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
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39).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
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각인이며, 그분 생명의 숨결
을 나누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이 생명의 유
일한 주인이시다. 인간은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신다. "너
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앙갚음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앙갚음을 하
리라."(창세 9,5) 성서의 이 대목은 생명의 신성함이 어떻게 하
느님과 그분 창조행위 안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창세
9,6)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그분 권능에 달
려있다. "어느 동물의 목숨이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
느 사람의 숨결이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욥 12,10)
하고 욥은 외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1사무
2,6)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 32,39)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권능을 함부로, 위협적
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피조물들에 대한
자상하고 사랑에 찬 관심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신다.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인듯이, 하느님의
이 손은 자식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돌보는 어머니의 손처
럼 사랑하는 손이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
혼을 가다듬고 가라앉았나이다. 어미 품에 안긴 젖은 아기 같
나이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은 아기 같나이다."(시편 131,2;
이사 49,15; 66,12-13; 호세 11,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민족
들의 역사와 개인들의 운명 속에서 단순한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의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계획이
가져오는 결과를 본다. (◆계속)

나눔의 신비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우리는 루카 복음 9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계산해 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군중에게 나누어 주시니,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나 되었더랍니다.

논리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설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사회학적 해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해설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당연히 각자의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기 시작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자신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설은 하나의 주석적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해설이 옳건 그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자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독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논리는 어느덧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Winner takes all)는 멋진 문장에 포장되어 정당화됩니다. 그것은 단지 현대사회만의 논리는 아니었을 것이며, 예수 시대에도 인간의 탐욕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누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모두

풍요롭게 되었다고 오늘의 복음은 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누지 말라고, 나누면 빈곤해질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복음은 그 세상의 논리에 맞서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성체성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체성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오히려 오늘 둘째 독서로 읽은 코린토 1서 11장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특별히 오늘의 복음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의 깊은 체험을 통해 성체성사의 신비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나눔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순수한 밀로 만들어진 제병이 예수님의 몸으로, 순수한 포도로 빚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성변화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의 복음은 생명을 나누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즉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통해 그 놀라운 신비가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성체와 성혈의 신비의 중심에서 교회공동체는 생명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받은 생명을 다시금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성체와 성혈의 신비는 살아있는 신비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체 봉사자

다음 주 전체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천남숙 리디아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자	이승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6월
예수
성심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의 삶 안에서 체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닮기로 결심하는 달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매일미사 중에서.

◆ 백삼위 울뜨레아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6일) 낮미사후 즉시 친교장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점심제공)
- 문의 : 본당 울뜨레아 간사 천남숙 리더아 ☎(310)408-3174

◆ 본당 성령 세미나 안내

- 일시 : 6월9일(수)~13일(주일)
수-토 7:30p~10:00p, 주일 1:30p~5:00p
- 지도 : 이성주 프란치스코 신부/심원택 토마스 신부
(전/현 부산교구 성령지도 신부님)
- 참가비 : \$20
- 본 성령세미나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 참석하는 교우들께서는 5월31일부터 9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310)569-3940 최기남 야교보 성령지도회장

◆ 백삼위 골프회 6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6월12일(토) 오전 11시30분 티오프
- 장소 : 브룩사이드 골프코스 No.1(폐사디나 소재)
- 연락처 : 정충로 안토니오 회장 ☎(310)991-6966
이남현 박시모 부회장 ☎(213)272-3598

◆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전 신자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환영식 : 6월20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6월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서예(한글, 한문, 사군자)반 백삼위 신자 가훈 써주기

- 일시 : 6월20일(주일, 아버지날) 오후 1시 이후, 2층 유아실
- 강사 : 박태홍(한국예총 미국 서예가협 회장)님이 무료 봉사
- 액자값 : \$100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374-1572

◆ 배론 청년의 밤

- 입기끝과 시작을 맞이하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 일시 : 6월25(금) 오후 7시30분
 - 주제 : 'Hawaiian'(하와이 스타일 의상을 입고 오세요!)
 - 푸짐한 상품, 저녁식사와 각테일 제공
 - 새 회원 모집 : 많이 참여해주세요.
 - 문의 : 부회장 강호우 안토니오 ☎(310)951-8509

◆ 성모회 온천관광

- 일시 : 6월25~26일(금/토) 1박2일
- 장소 : Waner Springs
- 회비 : \$40(비회원 \$55) 선착순 30명
- 신청 : 오혜숙 루시아 성모회장 ☎(310)490-3358

◆ 유아세례 신청

- 일시 : 6월26일(토) 오후 6시
- 세례신청서 : 사무실에 제출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당일 5시45분까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6일(주일) : 대건회(회덮밥 \$4)
- 6월13일(주일) 토런스 서3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국세찬	김관기	김기석	김낙기
	김세련	김영길	김윤진	김일선	김주량	김찬구
	김충섭	박정희	박진심	박홍룡	변혜경	송호창
	양영관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오일순	이병우
	이태옥	임한나	장영진	정훈모	조소영	최원석
	최태훈	최희숙	한창주	황인종	이크리스	
합계 : \$4,220						
미사헌금 : \$2,428.85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국세찬	김관기	김기석	김낙기
	김영길	김윤진	김일선	김주량	김찬구	김충섭
	박정희	변혜경	송호창	양영관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이병우	이일길	이태옥	임한나	정훈모
	최원석	최태훈	한창주	황인종		
합계 : \$2,330						
한남제인 도네이션 : \$360						

공지사항

◆ 첫영성체 예식 ... '축하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6일) 오전 11시 미사 중
- 대상 : 주일학교 학생 20명(강 로사, 이 카탈리나, 오 안토니오, 유 스텔라, 정 안토니오, 오 니콜라오, 김 프란치스코, 박 스텔라, 신 안드레아, 이 미카엘라, 정 다니엘, 장 야고보, 박 니콜라오, 칼란트라 마리아, 이 다니엘, 조 헤이즐, 정용현 다니엘, 문 아가다, 정 안드레아, 채 크리스토퍼)
- 신영세 어린이 : 이 클라라, 유 스텔라, 오 안토니오, 김 스텔라, 김 베로니카(이상 5명)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 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준비물 : 슬리퍼팩, 세면도구, 모자, 자켓, 여벌옷, 선크림, Repellent cream, 개인물통, 주일학교 티셔츠, 수영복, 주일헌금
- 마감일 : 오늘 주일(6일)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참가비 : \$195 * 접수 : 주일학교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유빌라테 성가 동교회 정기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

- 일시 : 6월11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 미사 : 김두진 바오로 신부 집전 ☎(909)618-7575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7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 참가비 : \$160 * 신청 : 이유나 ☎(562)319-3456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이아가다 328-0847 6/19(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경용 야고보 530-7702 6/19(토) 오후 7시
	3	신덕래 데레사 494-1390	신덕래 데레사 494-1390 6/17(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12(토)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6/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화수 올리아나 213-248-4576 6/18(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6/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남현 막시모 793-7733 6/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황지영 안젤라 895-8624 6/18(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재연 다두 634-2283 6/5(토) 오후 7시 강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6/12(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희영 안나 544-8245 6/1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2(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도완 다니엘 892-1213 6/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541-0767 6/8(화) 오전 10시30분

클릭! 교리

병자성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칠성사 중에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어떤 성사일까요?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입니다. 병자성사란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과거에는 종부성사(終傅聖事)라 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병자성사라 하여 고통 중에 있는 신자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제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환자가 어떤 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픈 상황과 신앙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어 사제가 환자에게 좀 더 섬세히 다가가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과 고통은 우리의 삶에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자신의 무능과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합니다. 동시에 병고로 허약해진 마음을 신앙으로 굳세게 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 2년 전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자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다시 회복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병자성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병과 고통은 우리의 삶에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자신의 무능과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합니다. 병고로 허약해진 마음을 신앙으로 굳세게 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

서는 인간 삶의 여정에 함께하시면서 인생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그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층 성숙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의 단계마다 공동체와 하느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 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줍니다.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은 후 다시 받아도 됩니다. 병자성사는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리를 공부한 후 세례성사를 받게 되는데, 그 때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와 영명축일은 무슨 뜻이며, 왜 그 날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서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성인과 순교자의 이름, 그리스도교의 덕을 의미하는 이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례명을 정할 경우, 그 성인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길 소망하며 성인이 자신의 수호성인이 되어 보살피 주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덕을 드러내는 이름으로는 아가페(사랑), 피데스(신앙), 스페스(희망), 이레네(평화), 힐라리오(기쁨), 켈레스티노(천상적인), 펠리치시모(지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 세례명이 뜻하는 그리스도교의 덕목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수호성인을 공경하며 하느님께 전구해 주길 기도하는 대중 신심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호성인에 대한 공경이 수호성인의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확산되었고, 교회는 참되고 올바른 성인 공경 신심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영명축일은 세례명이 뜻하는 주보 성인을 기념하도록 교회 축일로 정한 날입니다. 신자들은 주보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생일 못지않게 특별한 날로 기념하며, 세례의 의미와 주보 성인의 성덕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료=서울 대교구 정보마당>

